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원 자격 논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원 일부의 적격 여부가 대두됐다. 지난 12일(월) 열린 회의에서는 개방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희망자를 받고 그 중 추천인을 추리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우리학교가 새로 선임하는 개방이사는 총 2인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선임 인수의 2배수인 4명을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원 일부의 자격 미달로 인해, 결의 내용 및 추천인 선발에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에 적격여부를 의뢰한 구성원들은 교수대표 2인과 학생대표 1인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수대표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를 통해 선출된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 교수대표 5명 중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학기 동계방학 중 열리기로 예정됐던 교협 총회가

연기되면서 이번 학기 대평의 교수대표를 선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수대표였던 2인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데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토)자로 만료됐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는 것이 학교 자문 내용이다. 또한 부적격 판단을 받은 학생대표 1인은 전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정민형(사회·정의 06) 군이다. 정 군 또한 지난해 12월 31일(토)자로 임기가 만료됐고, 학칙 상 졸업 유예자는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달 21일(수) 교협 총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미 진행됐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결의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다. 김학태 기획조정처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천인 선발기준 등 제반 사항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민형 군은 임기 기한에 대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시작은 지난해 3월 중이었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졸업 유예자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합의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일(목) △대평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장 △재단 이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직선제로 당선된 학생대표가 있음에도 학생 대표 자신이 아닌 정민형 군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달 1월 1일(일)자로 대평의원으로 선출된 정성태 동문대표는 12일(월) 열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배제된 재 회의가 진행됐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개방이사제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방이사를 두도록 명시한다. 이에 따라 학교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워야 하며,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대학평의원회 산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중 선임해야 한다. 추천 인수는 선임 인수의 2배수이다.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은 △교수 5인(교수협의회 선출) △학생대표 2인(서울배움터, 글로벌캠퍼스 각 1인) △직원대표 2인 △동문대표 1인 △기타 학교 발전 기여자 1인(총장 위촉) 총 11명으로 각 학교 구성원을 대변하는 기구.

교과부, 우리학교 본·분교 통폐합신청서 보완 요구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우리학교 본·분교 통폐합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10월 14일(금) 우리학교는 본·분교 통폐합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이후 4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보완자료를 요구받았다. 보완자료 제출기한은 지난달 10일(금)까지였으나 학교 측이 방학 중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교과부가 우리학교에 요청한 보완자료에는 △유사 중복학과와 통합 △학제개편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서 △서울배움터 및 통합 대상 학부의 전제교수 동의서 등이 있다. 우리학교 유사중복학과에는 △서울배움터 경영학부와 글로벌캠퍼스의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서울배움터 경제학과와 글로벌캠퍼스 금융경제학과 △서울배움터 영어커뮤니케이션·통번역학과와 글로벌캠퍼스 영어통번역학부가 있다. 지난해 학교 측은 글로벌캠퍼스의 경제학과를 금융경제학과로, 서울배움터의 영어통번역학과를 영어커뮤니케이션·통번역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폐합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심사 결과 여전히 커리큘럼 상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학제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처는 더 이상의 학제개편 없이 본·분교 통폐합을 인가받기 위해 해당 학부 교수들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태 기획조정처장은 "교과부가 말한 유사중복학과는 사실 과 이름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상으로도 차별화돼있다"며 "하지만 보완을 요청받은 이상, 다시 한 번 해당 학부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부를 설득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주옥(법·법 08) 서울배움터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분교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학교 측이 학제개편 등 구체적인 통폐합 방법과 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과정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분교 통폐합 설명회를 열어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는 자리가 꼭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과부는 보완자료와 함께 지난해 제출했던 글로벌캠퍼스 전제교수 동의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소명도 필요함을 통보했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2012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 열려

50여개국 대표 학생들의 열띤 토론 이어져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배움터 애경홀에서 이번달 2일(금)부터 4일(일)까지 3일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달 26일(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기

념과 홍보를 위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참가자 51명과 의장단 5명 등 총 121명의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진행 첫째날인 2일(금)에

발표된 의제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모색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방안 논의 △방사선 물질 방호대책 마련'으로, 실제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같이 눈길을 끌었다. 3일(토)부터는 세 가지 의제 토론이 번갈아 진행되는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설을 한 후 다른 참가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현실적인 핵안보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날인 4일(일)에 참가자들은 오전까지 계속된 회의를 토대로 공동선언문을 발표

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핵 테러를 경계하며 점차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할 것이 강조했다.

회의를 총괄한 김봉철 국제학부 교수는 폐회 선언에서 "핵안보는 대학생 모두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의 시각이 한 뼘 더 자란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캐나다 대표를 맡은 김지수(국제·국제 11)양은 "반원형 자리 배치와 각 자리에 대표국 국기를 놓은 점이 실제 회의장을 연상시켰다"며 "모의 회의인데도 체계적인 방안이 논의돼 다양한 국가의 입장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유나·문요섭 기자 85macho@hufs.ac.kr



▲각 국가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발언기회를 얻고 있다.

지면안내

2 중운위 회의록은 비공개?

4 경영학과 인프라 구축 시급

6 6년째 일시정지 교양필수 '글쓰기'

7 대학생, 영화인을 꿈꾸다



화장실 변기보다 숨이 먼저 막힙니다



빈 의자

옛다, 1000원

▲지나해 하반기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대학생들의 큰 이슈는 '등록금 인하'였다. 지난 선거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집권당이 이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반값등록금에 관련된 조급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대학생들은 서울시 곳곳에서 모여 반값등록금 실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간절한 염원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생들의 행동에 대중들의 반응과 사회적 공감이 더해진 결과 이번 해 전국 100개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인하율 49.96%로 거의 반값에 가까운

등록금 인하를 실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인하율을 언급할만한 대학교가 마땅치 않다. 특히 사회적으로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에 소재한 대부분의 사립대의 경우 그 인하율이 채 3%에도 미치지 않는다. 대학생 대부분이 등록금이 싸졌다고 체감하지 못할 정도다. 몇몇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을 살펴보면 고려대의 경우 2.06%, 연세대는 1.49%로 아주 낮은 편이다. 등록금 최저 인하 학교인 세종대의 인하율은 0.01%, 액수로는 고작 1000원이다.

▲등록금이 책정된 지도 한참 지났고 학생들이 등록금 납입까지 끝낸 이 시점에서 등록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뒷북이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의 결괏값을 가보자니 뒷북뿐만 아니라 온갖 타악기를 두드려도 충분하지 않다. 1000원이라니. 요

즘 물가에 1000원으로는 과자하나 사먹지 못한다. 심지어 서울시 교통비마저 인상태 1000원으로는 버스비조차 안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인하율은 액수가 얼마든 그저 '인하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급급해 등록금을 갖고는 가리고 아웅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이 요구한 정확한 구호는 '반값'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이 정확히 반값의 등록금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반값이란 구호 속에는 반값에 해당하는 액수가 아닌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 따라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 대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있다. 대학생들이 진정 원했던 결과는 명목뿐인 등록금 인하나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다. 신혜지 부장

국·부장 고정칼럼

학내 브리핑

동아리 박람회 놀러오세요

글로벌캠퍼스의 동아리 박람회가 이번 달 20일(화)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다. 참가 동아리들은 신청을 마쳤고 교내 대부분의 동아리가 참가 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각 동아리들이 학생들에게 동아리 방을 개방해 각 동아리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동아리연합회에서는 각 동아리별 지원을 확대해 박람회를 참가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게임과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했다.

서울배움터 46대 총학생회 재선거 공고

지난해 무산됐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일정이 공고됐다. 이번 달 13일(화)부터 14일(수)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천 및 입후보가 진행되며, 15일(목)부터 26일(월)까지 12일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투표는 27일(화)과 28일(수) 이틀에 걸쳐 치러진다. 당선자는 투표 마감 바로 다음날인 29일(목) 공고된다. 한편 약 3개월간 총학생회 업무를 대신하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달 7일(수) 해체됐으며, 총학생회 선출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대체된다.

외대월드컵, 달릴 준비 됐나요?

제 31회 외대월드컵이 서울배움터에서 이번 달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32개의 학과뿐만 아니라 국제학생회(ISO)와 학군단(ROTC)이 개별 팀으로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학생들이 각 소속 학과 축구팀의 일원으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끼리 국제학생회(ISO) 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경기는 A그룹 16팀, B그룹 18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외대월드컵은 축구용품 스폰서의 후원을 받아 치러진다.



학생회 회의록, 학생에게는 비밀?

지난 8일(목) 열린 글로벌캠퍼스의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학내 언론을 포함한 중운위 구성원이 아닌 학생들의 회의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회의의 전체 내용이 아닌 논의의 안건과 그 결과만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현성(동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미리 공개할 수 없는 안건이 있을 수 있다”며 “확대운영위원회나 중운위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학생들과의 소통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지만 이경환(동번역·스페인어 08)군은 “학생들의 알권리를 위해 학생회가 공개 돼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관례적으로 중운위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일반 학생들의 참관을 허가해 왔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회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주옥(법·법 08) 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장은 “비대위에서도 중운위 회의록 게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회칙에는 없지만 투명하고 열린 학생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총학생회가 학생회칙을 개선할 때



▲ 일반 학생들은 회의록을 볼 수 없다

회의록 공개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미경(자연·화학 09)양은 “대학교의 학생회도 작은 국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권한을 학생 대표자들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가

는지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또한 송준혁(사회·행정 08) 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특별히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권리를 이행하는 학생대표자들의 회의가 열려야 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박물관 첫 발걸음 떼다

잉카의 문화 느낄 수 있어

이번 달 5일(월)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콤플렉스(MInerva Complex) 3층에 위치한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역사관은 우리 대학의 역사를 반영한 기록 유산들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 구성은 △설립자 소개실 △기획전시실 △주제전시실 △영상실 △역사전시실로 돼있다. 각 전시실에는 서울배움터와 글로벌캠퍼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 및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추 전시회에서는 △마추픽추 사진 △마추픽추 관련 서적 △고고학자 하이럼 빙햄 탐험대 사진 등 여러 가지 잉카 문명에 관한 자료들을 감상할 수 있다.

공대현(동양어·이란어 12)군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몰랐던 잉카문명과 마추픽추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나 유적지들을 전시해 주변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한 페루 대사관은 “학생들이 첫 번째 기획전시인 마추픽추 발견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통해 페루를 중심으로 한 남미 지역의 잉카문명을 깊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문요섭 기자
85macho@hufs.ac.kr

학생 휴게 공간 ‘빅 애플 라운지’ 입주

지난 달 28일(화)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콤플렉스에서 ‘빅 애플 라운지(BIG APPLE LOUNGE)’ 동관제막식이 있었다. 이번 동관제막 행사는 그간 학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거액의 발전기금을 쾌척한 뉴욕동문회 동문들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뉴욕시의 상징에서 그 이름을 따온 ‘빅 애플 라운지’는 얼마 전 입주를 끝낸 동아리 방과 같은 층에 위치해 많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문화적 휴게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빅 애플 라운지 내부 전경

박철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학생들이 빅 애플 라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재학생과 졸업 동문 간의 가교 역할 및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뉴욕동문회의 송고한 뜻을 받아들여 훌륭한 인재로 교육하고 육성하여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사로 미주동문연합회 이영희(영어 70) 회장은 “앞으로는 이곳에 뉴욕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들도 들여놓을 예정인데, 이 공간이 학생들의 휴게뿐만 아니라 교양도 쌓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한다”며 “해외에도 이렇게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든든한 동문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영희 회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학교발전기금 1천만 원을 쾌척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철 총장 △미주동문연합회 이영희(영어 70) 회장 △뉴욕동문회 임종부(영어 70) 전임회장 △황용태(영어 70)동문을 비롯해 △각 처 처장 △영어대 교수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외대학보사 86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2년 2월 27일(월)~3월 23일(금)
모집대상 : 양 배움터 II, 12학년 학생
지원서 마감일 : 3월 23일(금)
필기시험 및 면접일 : 3월 24일(토)
합격자 발표일 : 3월 25일(일)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 서울배움터 :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문의사항 연락처 : 010-2010-7620 편집장 오유진



오늘 점심은 기식에서 서울배움터 기숙사 식당 새단장



▲ 기숙사 식당에 새로 입주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 새단장한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1층에 위치한 기숙사 식당이 새 단장을 마쳤다. 새 기숙사 식당은 지난 달 22(수)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변화한 기숙사 식당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식사 환경의 쾌적함을 높였다.

기숙사 식당에서는 다섯 개의 코너에서 각각 △가정식 백반 △이탈리아 음식과 가스 정식 △떡볶이 요리 △철판요리 △분식메뉴와 도시락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한다. 또한 햄버거를 비롯해 인스턴트 음식을 판매하는 Mom's Chicken(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주를 통해 학생들의 메뉴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기숙사 식당의 변화에 대해 김수빈(중앙어·이러언어 11)양은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인문관 학생식당에만 사람들이 모여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기숙사 식당의 변화가 식사시간 인문관 식당의 혼잡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배움터 기숙사 식당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지원팀 후생과 김종오 과장은 "방학 중 식당 운영업체인 동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식사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만큼 기숙사 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관리소홀, 지저분한 여학생 휴게실

글로벌캠퍼스 여학생 휴게실이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 여학생 휴게실은 이름 그대로 여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다. 많은 여학생들이 수면실에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그런데 관리 소홀로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학생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홍정연(자연·통계 10)양은 "전날 있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 냄새까지 난다"며 "자연과학대 여학생 휴게실은 더 심각해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본관 여학생 휴게실에 구비된 컴퓨터 3대 중 2대가 작동되지 않았고 마우스가 없는 컴퓨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의자 △탁자 △화장대 위에는 오래 된 먼지문지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으며 공학관 여학생 휴게실 의자엔 금이 가 있는 상태였다.

개장 초기의 여학생 휴게실은 총여학생회 관리 하에 운영됐지만, 2009년 총여학생회가 사라진 후 책임은 총학생회 여성국장에게 위임됐다. 그리고 여성국장은 '여학생 휴게실 지킴이'를 학기마다 선발해 시설을 유지해왔다. 여학생 휴게실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시점은 지난 해 2학기, 지킴이를 새롭게 선발하지 않았을 때부터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2주가 지나도록 여학생 지킴

이들은 부재한 상태다. 김현진(동유럽·노어 11)양은 "여학생 휴게실 관리와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유은영(통번역·이탈리아어 10) 여성국장은 "문제점은 숙지하고 있다"며 "현재 책임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여학생 휴게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용 시 다른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 여학생들이 쓰레기가 방치된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다

2012 신입교원 명단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조구호
임용일 2012.3.1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
학과 송승원
임용일 2012.3.1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강진석
임용일 2012.3.1



동유럽대학 폴란드어과
김용덕
임용일 2012.3.1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이대진
임용일 2012.3.1



동유럽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
김신규
임용일 2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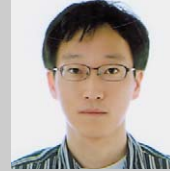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최오섭
임용일 2012.3.1



동유럽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김상현
임용일 2012.3.1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전병힐
임용일 2012.3.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신동화
임용일 2012.3.1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이창준
임용일 2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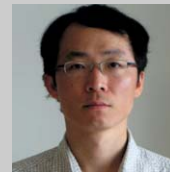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김미순
임용일 2012.3.1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신주철
2012.3.1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박성호
임용일 2012.3.1



인문대학 언어인지과학과
송재묵
임용일 2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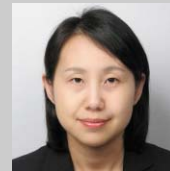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박미정
임용일 2012.3.1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박정만
임용일 2012.3.1



TESOL대학원
교수학습지도학과
김현정
임용일 2012.3.1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조재범
임용일 2012.3.1



외국문학연구소
고경남
임용일 2012.2.1



제가 젊었다면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 수출 91%, 밖에서 벌어들인 집안을 살찌우는 기업
- 동서 균형 발전을 실천하는 기업
- 평균 근속연수가 19년이 넘고, 17년간 노사평화를 이룩한 기업
- 국내에서 가장 많은 34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한 기업
- 학교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 현대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삼호중공업

사이버외대 신축공사로 좁아진 등하교길

보도 이용은 다음달 초부터 가능



▲ 아침 등교길, 학생들이 보도가 아닌 임시로 마련된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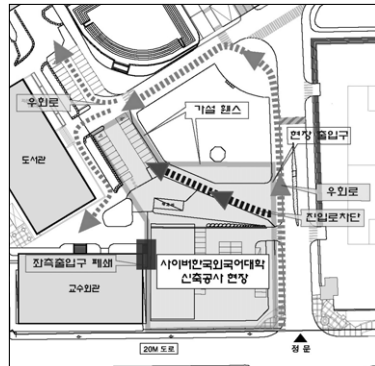
사이버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외대) 신축공사로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22일(수)부터 시작된 사이버외대 신축 공사장은 교수회관 옆 테니스장이 있던 위치 부근이다. 이로 인해 정문에서 도서관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통제됐다. 또한 정문 왼쪽 보행로에 가벽이 설치돼 인도가 폐쇄되고, 차도를 통행로로 쓰고 있다.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도의 일부를 보행로로 확보했으나, 유동인구에 비해 통행로가 좁아 여전히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진아(사회·자전 11)양은 “공사가 시작된 후로 줄곧 차도로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아침 시간에 특히 혼잡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획팀은 공사 진행상 다음달 초까지는 차도를 보행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이버외대 부지 밑을 통과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를 공급하는 배관들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재

정비된 배관들이 현재 가벽이 설치된 보행로의 땅속 근처를 지나도록 설계되기 때문이다. 김재준 건설기획팀 팀장은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바란다”며 “완공 뒤에는 지금보다 통로 너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이버외대 완공은 다음해 7월로 예정돼 있다. 공사 완공까지는 정문에서 도서관으로 직접 통하는 길이 가벽으로 막혀 우회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 공사로 인해 바뀐 통행로

강의실 안은 바글바글, 학생들 속은 부글부글 경영학과 교육환경 개선, 언제쯤?

경영대 수강신청 제한시간은 단 3초라는 말이 있다. 수강신청 시작 후 3초 만에 모든 강의 수강인원이 가득 차 사실상 수강신청이 끝나버린다는 뜻이다. 문제는 수강신청 뿐만이 아니다. 강의의 종류가 적고 학생 수는 많아 전체적인 경영학과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왜 경영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와 비슷한 액수의 등록금을 내고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걸까. 그 이유를 파헤치고 단기적·장기적 해결책을 찾아보자.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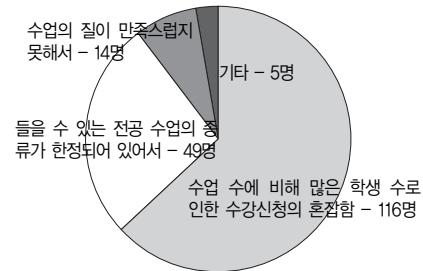
◆경영학과 수강신청, 그 총성 없는 전쟁 이번 해부터 경영학과 이증전공을 하게 된 고한솔(영어·영통 11)군은 깜짝 놀랐다. 수강신청이 시작되지 단 몇 초만에 모든 경영학 강의의 제한 인원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다행히 수강신청은 성공했지만 막상 수업 첫날 강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있었다. 수강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교수의 허가를 받기 위해 강의실 전체를 한바퀴 둘러싸며 줄을 서있었던 것이다.

경영학 제1전공 수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번 2학년 경영학 전공필수 과목 중 하나는 정원 외 수강신청을 요청한 인원이 216명에 달했다. 우상범(경영·경영 11)군은 “강의실 수는 한정돼있는데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수는 너무 많다”며 “강의실 수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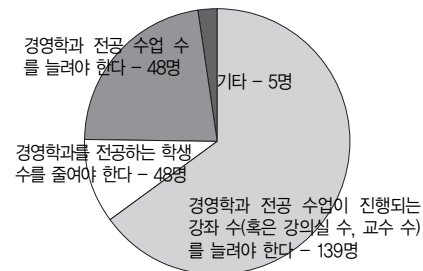
◆“우리에게도 쾌적한 교육 환경이 필요해요”

이번달 7일(수)부터 8일(목)까지 서울 배움터 경영학과 △제 1전공자 △제 2전공자 △이증전공자 △부전공자, 글로벌 캠퍼스 복수전공자 178명을 대상으로 경영학과 교육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인원의 약 81.8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수업 수에 비해 많은 학생 수로 인한 수강신청의 혼잡함’ (약 75.81%)이 꼽혔다. 경영학과 교육환경에서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한 개선 문제냐는 질문에는 현 환경에 만족하는 학생과 만족하지 않는 학생 모두 ‘경영학과 전공 강좌 수(혹은 강의실 수, 교수 수)를 늘려야 한다’(약 78%)고 지적해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열망을 보였다.

한편 △이증전공자 △부전공자 △복수전공자의 경우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 전공 수업의 종류가 한정돼 있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약 32%에 달했다. 안지영(영어·영어 11)양은 “절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53명 대상)



가장 시급하게 바꾸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178명 대상)

대적인 강의 수도 문제지만 다양한 종류의 강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 증전공자들은 새로운 강의가 열려도 제1전공자에 비해 정보를 늦게 전달 받는다는 것도 아쉽다”고 전했다.

◆양과 질, 동시에 올리는 방법은 없다

2012학년도 기준으로 경영학과 입학정원 수는 약 180명이며 이증전공자는 입학정원의 150%를 뽑는다. 여기에 편입생 23명과 복수전공자 254명을 합하면 경영학과 전공수업을 듣는 학생은 약 730명이다. 이에 비해 경영학과 교수 수는 27명으로 학생 수가 교수 수에 비해 약 27배나 많은 셈이다. 또한 한 과목 당 세 시간이 배정되는 경영학 강의의 특성상 한 교수당 2~3개 이상의 강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강의의 절대적 수나 종류의 한계가 이런 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 강의 당 학생을 최대한으로 수강신청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경영인인증협회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한 강

의 당 권장 학생 수는 60명까지이며 최대 80명을 넘기지 말라고 명시돼있다. 또 우리학교 대부분의 강의실들이 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즉, 수강신청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을 한 강의에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인 셈이다.

◆학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경영학과 교수들은 지난 2009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3년 동안 경영관 건립을 위해 자신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약 2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경영관 건립 계획이 뒤로 미뤄지면서 기금 또한 언제 쓰일지 모르게 된 실정이다. 간헐적 경영학부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경영대학원 및 글로벌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독립된 경영관 건립을 목표로 기금 조성 운동을 시작해 학교 측에 경영관 건립을 촉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경영관 건립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점은 전임교수의 점층적인 총원 및 강의실의 충분한 확보다. 교수 수를 늘려 한 교수 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최대한 줄이고 강의실을 새로 확보하면 강의의 질과 양을 동시에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간 경영학부장은 “새로 건립되는 사이버외대의 강의실 일부를 경영학과에 배정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양수민(경영·경영 08) 글로벌 경영대 비상대책위원회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수강신청 때마다 힘들어하는 학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경영학과 교육환경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한 “학교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글로벌 경영대, 더 나아가 모든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사령

◇임

- 차장
강유나(영어·영어 11)
안지혜(영어·영문 10)
이은수(사회·자전 11)
홍규원(동양어·이란어 11)
문나윤(어문·중앙아시아 11)
우보연(동유럽·세국어 11)
- 정기자
문요섭(동유럽·폴란드 11)

◇면

- 팀장
김혜정(통번역·태국어 10)
남궁현주(통번역·영어 10)
신의진(동유럽·폴란드 10)

10주 야간 회화과정 교육생 모집(90기)

학부생은 과정 수료 시, 학점인정(실용외국어-필수) 및 외국어인증(2007학번부터) 또는 영어졸업인증(2006학번까지)



1. 모집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10개 언어)

2. 교육기간 및 시간

가. 교육기간 : 2012. 4. 16(월) ~ 6. 22(금)/(월화목금, 주4일 수업)
나. 교육시간 : 19:40 ~ 21:30

3. 접수

가. 기 간 : 2012. 3. 15(목)부터 선착순 접수
나. 접수방법 : 외국어연수평가원 홈페이지 (http://fltc.hufs.ac.kr) → 수강신청

4. 교육비

가. 금액(공통사항 : 전형료 30,000원 포함)
- 일반인 : 594,000원, 일반인(재등록) : 537,000원
- 본교생 : 482,000원, 본교생(재등록) : 426,000원
- 졸업생 : 481,000원, 졸업생(재등록) : 425,000원
※ 재등록 : 2000년 이후 10주 야간과정 또는 20주 주·야간 정규과정 수강자

※ 본교생 및 졸업생 : 학부, 대학원, 사이버대학

나. 납입방법
- 현금결제 : 제일은행 227-20-379008(반드시 본인 명의 입금)
- 카드결제 : 외국어연수원 홈페이지 → 온라인접수 → 카드결제

5. 반편성 시험

가. 일 시 : 2012. 4. 7(토) 오전 10시
나.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6. 언어별 시험 유형

가. 영 어 : LC&RC → 45문항(어휘, 문법, 작문)
원어민 인터뷰(1:1로 진행) → 소요시간 5-10분
나. 기타 외국어 : RC(Reading&Comprehension) → 40~50문항(어휘, 문법, 작문)
원어민 인터뷰(1:1로 진행) → 소요시간 5-10분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어연수평가원 홈페이지

8. 문의사항 : 외국어연수평가원 운영팀(02-2173-2523~2524)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2학년도 후기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1. 입시안내

홈페이지 http://www.hufs.ac.kr/gra → 모집요강

2. 입시일정

가. 원서접수 : 2012. 4. 9(월)~4. 13(금) 09:00~17:00, 학교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전형 일 시 : 2012. 4. 28(토) 10:00
다. 합격자 발표 : 2012. 5. 10(목) 14:00

3. 장학안내 :

가. 본교(한국외대) 출신자 장학금(석사과정 신입생)
나.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다. 외국인 신입생 장학금

4. 특이사항 :

* BK21 사업 선정 학과 : 언어인식과학과, 중어중문학과

5. 주소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전화 : 02)2173-2384~7 FAX : 02)2173-3369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입학안내 참조

부엉이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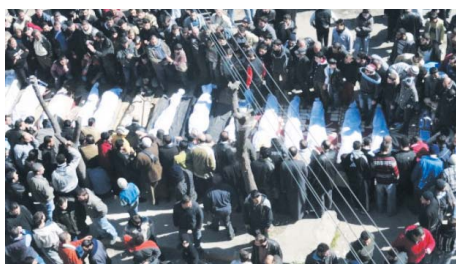
유럽-러시아



푸틴 총리가 64%라는 압도적 점유율로 러시아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푸틴은 2024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푸틴의 3선 연속 당선을 보는 시각이 러시아 내에서 곱지 않은 편이다. 현재 야당 지도자를 포함한 약 500여명의 푸틴 반대세력들은 푸틴의 대선승리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야당 지도자들은 푸틴의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시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푸틴의 향후전망에 대해 묻자 우리학교 러시아 연구소 장세호 연구교수는 "총선 이후에 부각된 부정선거 규탄 시위 및 달라진 민심을 집권 초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시리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움직임이 심

유럽-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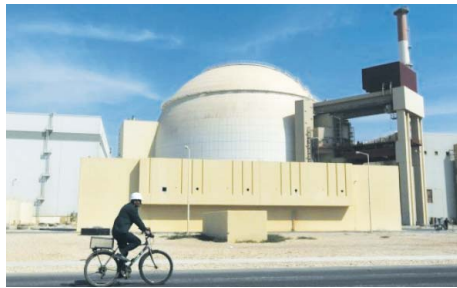


상치 않은 가운데 스페인이 주 시리아 대사관을 지난 6일(화) 잠정적으로 폐쇄했다. 이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내 놓은 스페인 당국의 조치로 보인다. 스페인은 이미 지난 달 주 시리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바 있다. 현재 유엔 고위 관료는 시리아에서 반군의 세력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 훌스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또한 시리아를 두고 군사개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시리아의 향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란이 군사 단지인 파르친에 대한 유엔 핵



아시아-이란



감시 기구의 접근을 허용했다. 파르친 군사단지는 지난 몇 년간 핵무기에 맞먹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무기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의심받아온 지역이다. 지난 2월 유엔 원자력 기구는 테헤란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란에게 파르친 지역의 방문을 요청했으나 이란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겨울 방학 중 이란을 다녀온 박다솜(동양어·이란어 11)양은 "국제정세에 관한 뉴스를 보면 이란의 뒤숭숭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막상 가보니 이란의 분위기는 평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및 독일과 핵관련 6자회담을 재개한다.

중국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비밀구속을 합법화 했다. 비밀구속이란 용의자가 구속되

아시아-중국



거나 정부의 감시대상이 될 경우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법이다. 또한 중국이 개정된 비밀구속법에는 용의자를 변호사가 면회 할 때에도 중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평소 중국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소연(중국·지역 11)양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 당국이 비밀구속을 실시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일(화) 미국의 에비 퍼스펠 고등학교



북미-미국



교무실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로부터 해고된 교사가 자신의 해고에 앙심을 품고 일으켰고 범인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고로 총 2명이 사망했으며 퍼스펠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공포에 빠졌다. 범인은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스페인어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출동했으나 2명이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지난 달에도 고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인해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여 지난 후 일어난 사건이라 미국 국민들의 충격이 더 큰 상태다.

지난 7일(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올해 세

북미-멕시코



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3년 연속 카를로스 슬림이 차지했다. 카를로스는 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조 6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72세로 멕시코에서 통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스웨덴 가구업체 창업주인 잉그바르 캄브라트가 슬림의 뒤를 이었다. 한편 포브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억만장자는 1210명에서 올해 1226명으로 늘어났다.

정리번역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흡산인더월드 (hufsan in the world)

박진애(동양어·이란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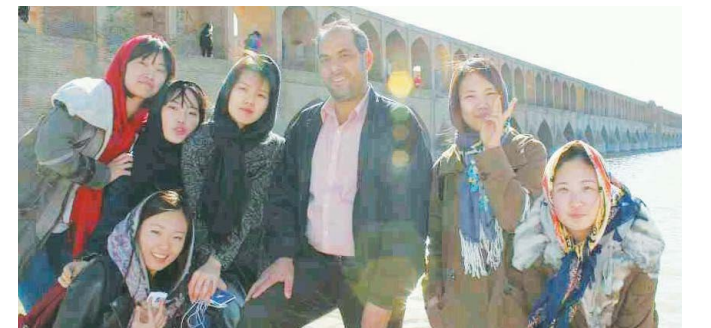
'간절함' 속 이란여행

대학교 1학년 생활을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던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작년 10월, 우리 학교에 테헤란 대학교 총장님께서 방문하셨고, 간단한 대담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테헤란 대학교 주최로 이란 문화 탐방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1학년 2명 △2학년 5명 △3학년 1명으로 이란어과 학생 총 8명이 한 달 동안 이란에 가게 되었다. 대부분 이란에 처음 가보기에 준비 과정이 많이 서툴렀지만 3학년 선배님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이란을 향해 떠날 수 있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경유해 테헤란 호메이니 공항까지 약 16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마침내 테헤란에 도착했다. 더운 나라인 줄만 알았던 이란에도 겨울은 있었다. 우리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행기 안에서부터 '루자리'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착용했다. 이 '루자리'를 시작으로 이란 문화를 하나씩 접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란에서의 첫날 밤 우리를 돌봐주실 장구이 아저씨를 만났다. 처음 보는 이란 사람이었지만, 타지에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다. 아저씨께서 처음으로 가져다주시는 이란의 대표 음식인 '첼로카밥'은 먹는 방식이 특이해서 재미가 쏠쏠했다.

다음 날부터 바로 문화 탐방을 할 줄 알았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란의 다리인 씨예세틀에서 현지인과 기념 촬영.

먼저 테헤란 대학교 부속기관인 '데호코더'에 등록을 하였다. 다행히 8명 모두 한 반이 되었기에 외대에서 이란인 교수님께 수업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웬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교수님께서 질문하는 것 마다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도 명색이 이란어 전공자인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고국에 돌아 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렇게 도착 후 일주일만 여행을 잠시 놓고, 서로 도와가며 이란어를 공부했다. 이란에서 수업을 듣자마자 느낀 이 절실함, 1학년을 충실하게 보내지 못한 내게는 이 여행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한편으로 주말에는 꼬박 꼬박 여행을 다녔다. 이란은 한국보다 면적이 무려 7배나 크기 때문에 여행 한번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새로운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었다.

역사의 도시 '커션', 거대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카즈빈', 아름다운 도시 '이스파한', 우리는 이렇게 테마를 정해 여행을 다녔다. 가이드 없이 우리끼리 떠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고 막막했지만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노하우가 생겼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커션에서는 잠깐 길을 잃어서 두려운 적도 있었지만,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여행을 하면 그 곳에서 아주 사소한 일을 겪더라도 각각의 상황을 대처하는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내가 전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여서 더 애뜻한, 이란에서 느낀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채로 우리는 한국에 돌아왔다. 이제 한국외대에서의 2학년 생활이 기대된다.

흡스피킹 (Hufs+speaking)



▲ 선배와 함께 밥 먹기

A: 선배 안녕하세요? 같은 과 신입생 000입니다.
B: 반가워요. 학교생활은 어때요?
A: 재밌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교수님과 선배님들을 만나서 좋아요.
B: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A: 전공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쭙봐도 될까요?
B: 마침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사줄게요.

프랑스어

A: Bonjour? Je suis 000, nouveau étudiant du même département. 봉쥬? 주 스위 000, 누보 에뛰디앙 뒤 멤뎀 데빠르망.
B: Enchanté, comment la vie de l'université?(유니베르시테) 앙상테, 꼬몽 라 비 드 뤀니베르시테?
A: C'est amusant, je me fait des amis(아미), des anciens étudiants(양시앙 제뛰디앙) et des professeurs. 세 아뮤장, 주 메 페 데 자미, 데 장시앙 제뛰디앙 에 데 프오페시오.
B: Si tu as des curiosités sur la vie de l'université, n'hésite pas de me demander. 시 뒤 아 데 퀴리오지테 쉬오 라 비 드 뤀니베르시테, 네지떼빠 드 메 드망테.
A: En fait, Je voudrais te demander sur ma spécialité Est-ce que tu est libre maintenant 앙 페뜨, 주 부드레 드 드망테 쉬오 마 스페시알리테, 에스끄 뒤 에 리브르 망뜨낭?
B: Voici l'heure du déjeuner. Nous pouvons nous parler en déjeunant ensemble. Je paye un tourné, 부아시 뤀오 뒤 데쥬네, 누 부몽 누 빠블레 앙 데쥬낭 앙상블, 주 배이에 앙 두오네.

단어장

안녕하세요 Bonjour?
신입생 nouveau étudiant
학교 l'université
친구 amis
선배 anciens étudiants

베트남어

A: Xin chào đàn anh, Em là 000, sinh viên mới của khoa này. 썬 찌오 단 앙잉, 엠 라 000, 싱 비엔 마이 꾸어 콰 나잉.
B: Rất vui được gặp em. Cuộc sống ở trường này em thấy thế nào? 젓 부이 득억 갓 엠, 꾸옥 쑹 ở 쩡응 나잉 엠 텡이 테 나요?
A: Rất vui. Vì gặp được những bạn mới, giáo sư và đàn anh nên em rất vui. 젓 부이, 비 갓 득억 능 반 마이, 자오 쓰 바 단 앙잉 뎀 엠 젓 부이.
B: Nếu có hỏi gì hoặc cái gì khó khăn thì em lúc nào cũng hỏi được cho anh nè. 네오 꼬 호이 지 황 까이 지 꼬 칸 티 엠 록 나요 풍 호이 득억 쩌 앙 잉 네.
A: Em muốn hỏi về những lớp chuyên môn, Em hỏi cho anh được không? 엠 무온 호이 베 능 령 쩡뎀 몬, 엠 호이 쩌 앙 잉 득억 콩?
B: Bây giờ là giờ ăn trưa rồi. Chúng ta vừa ăn trưa vừa nói chuyện đi nè. Để anh trả, 바이 저 라 저 안 쩌어 조이, 풍 따 바이 안 쩌어 브어 노이 쩡뎀 디 네, 데 앙 잉 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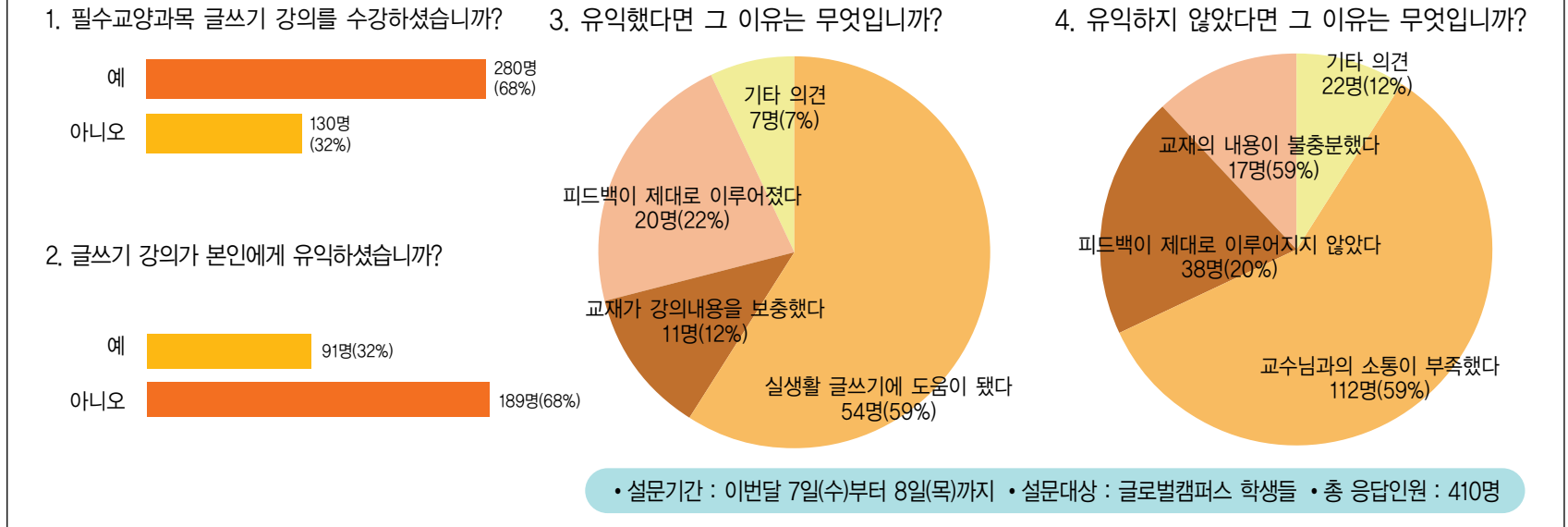
단어장

안녕하세요 Xin chào (오징),
신입생 sinh viên mới / sinh viên năm thứ nhất(1학년 학생)
학교(일반적인) trường học
친구 bạn
선배 đàn anh

<글로벌캠퍼스>

글쓰기 강의 6년째 일시정지

글쓰기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대학 공부에서도 꼭 필요한 기초능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학교에서는 07학번 신입생부터 글쓰기 강의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글쓰기 강의가 그 중요성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어렵고 그에 따라 학습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과특성에 맞는 글쓰기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속사정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글쓰기 수강생은 1200명, 담당교수는 1명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강의 수강중. 학사 규칙상 사이버 강의 6학기마다 개정돼야...”

“튜터 수는 15명, 튜터 1명당 수강생 80명 첨삭하는 셈”

◆글쓰기 강의...“유익하지 않았어요”

본보는 글쓰기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했다. 총 참여 인원 410명 중 글쓰기 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281명이었다. 글쓰기 강의가 본인에게 유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약 6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유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유익했다’고 대답한 학생의 2배가 넘는 비율로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 강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남궁현주(통번역·영어 10)양은 “글쓰기 강의가 필수 수강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없다”며 “글쓰기 강의를 들을 학점으로 다른 강의를 듣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의견을 말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글쓰기 강의가 유익하지 못

◆글쓰기 강의, 무엇이 문제길래

한 가장 큰 이유로 ‘교수님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를 꼽았다. 이는 전체의 약 5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학생은 “사이버 강의의 특성상 강의를 듣는 내내 한 번도 실제로 교수님을 뵙지 못했다”며 “교수님을 뵙지 못하니 수업의 중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수는 1200명에 달하는 반면 담당 교수는 1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글쓰기 강의를 담당하는 탁광혁 교수는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튜터들과의 교류에도 좀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또 “다음 해부터는 담당교수의 수도 더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 수업의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김다영(동유럽·세크어 11)양은 “강의의 구성이 세련되지 않아 오래된 강의라는 느낌을 줬다”며 “사이버 강의의 한계점이 이런 질적인 부분이라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강의는 학사 규칙상 6학기마다 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2007년도부터 이번 해까지 기존의 글쓰기 강의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즉, 2010년에는 강의가 개정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수 한국어교육과 학과장은 “현재 전공의 특성별로 나눠 강의를 제작하는 중이다”라며 “다음 해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원인은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였다. 20%의 학생들이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글쓰기 강의가 본인에게 유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한울(동유럽·세크어 11)양은 “피드백 받은 종이엔 글씨들이 흘려 쓰여 있어 튜터가 급하게 작성한 느낌을 줬다”며 “글씨를 알아보기 못한 경우도 허다해 피드백이 무용지물이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튜터’는 조교수와 비슷한 역할로써 학생들이 작성한 글쓰기 과제를 첨삭해 준다. 이들은 주로 전문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들로 이뤄져 있다. 본지가 조사한 결과 글로벌캠퍼스 글쓰기 강의 튜

터는 총 15명으로 수강생 정원이 1200명인 점을 고려하면 튜터 한 사람당 수강생 80명을 첨삭해 주고 있던 셈이었다. 이에 대해 김의수 학과장은 “현재로서는 튜터 수를 늘리기엔 재정적 문제가 있지만 점차 수를 늘릴 예정”이라며 “튜터 당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튜터들이기 때문에 첨삭의 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재가 불충분했다는 의견은 전체의 약 9%로 가장 낮은 이유로 뽑혔지만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드러났다. 이윤경(경영·국제경영 11)양은 “교재는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지만 교수님께서 교재를 그대로 읽으셔서 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며 “굳이 수업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재를 만든 탁광혁 교수는 “강의를 제작할 당시에는 글쓰기 강의의 교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년 12월 강의를 40%정도 완성했을 때 학교 측에서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탁 교수는 “급하게 교재를 만들게 돼 강의 때문에 몇 가지 예시를 곁들여 교재로 만들었다”며 “그 때 당시 교재를 만들면서 강의를 녹화하느라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의 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개설강좌가 부족해서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교양필수 과목이라면 강의 수를 넉넉히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도 글쓰기 강의를 공통기초교양으로

◆타 대학, 개별지도로 효율성 높여



선정했다. 연세대학교는 모든 글쓰기 강의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신촌캠퍼스의 경우 한 학기에 약 80강좌가

넉넉히 개설되며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튜터들도 2~3명 첨삭해주며 학생과 일대 일 개인면담

을 통해 자기소개서 등의 글쓰기를 돕는다. 연세대학교 행정실 최영숙 조교장은 “글쓰기 센터를 개설해 수업 외의 글쓰기 첨삭을 도와주고 있다”며 “이번학기부터는 온라인 기초 글쓰기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의 경우 각 학생의 전공특성에 맞는 강의를 만들어 운영한다. 또한 교수가 자신이 맡은 학과의 특성에 맞춰 교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글쓰기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쉽다. 이미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15명

으로 제한해 개별지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첨삭은 글쓰기 센터에 예약된 순서대로 튜터와 일대 일로 진행된다. 남신우 대학영어 조교(서울대)는 “강의가 수준별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졸업 필수 교양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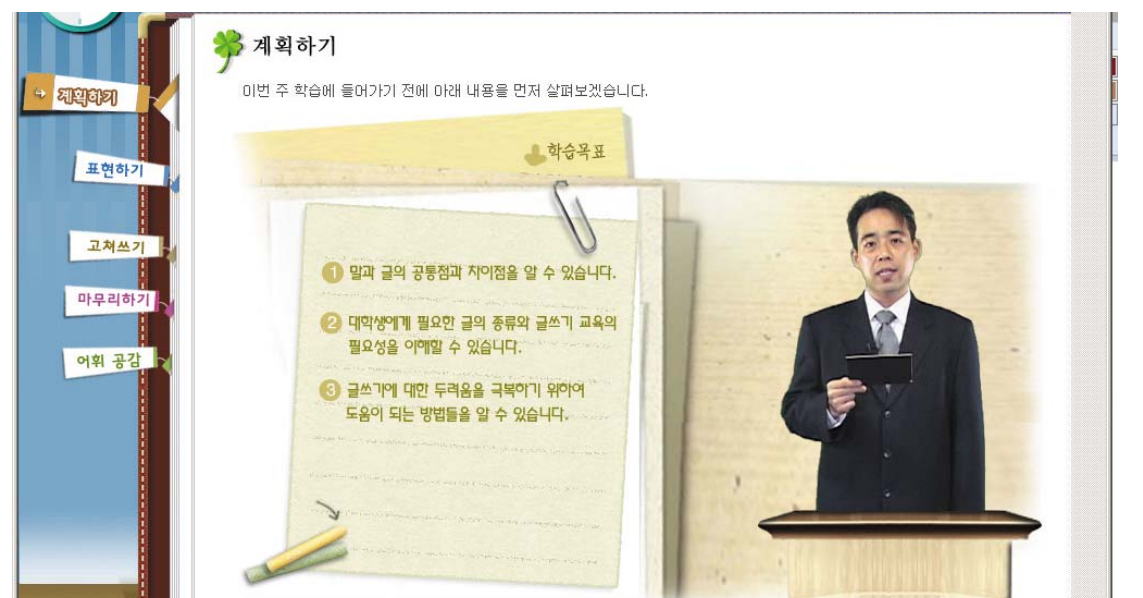
글쓰기 강의가 유익했다고 답한 학생들은 ‘실생활 글쓰기에 도움이 됐다’ (59%)를 가장 큰 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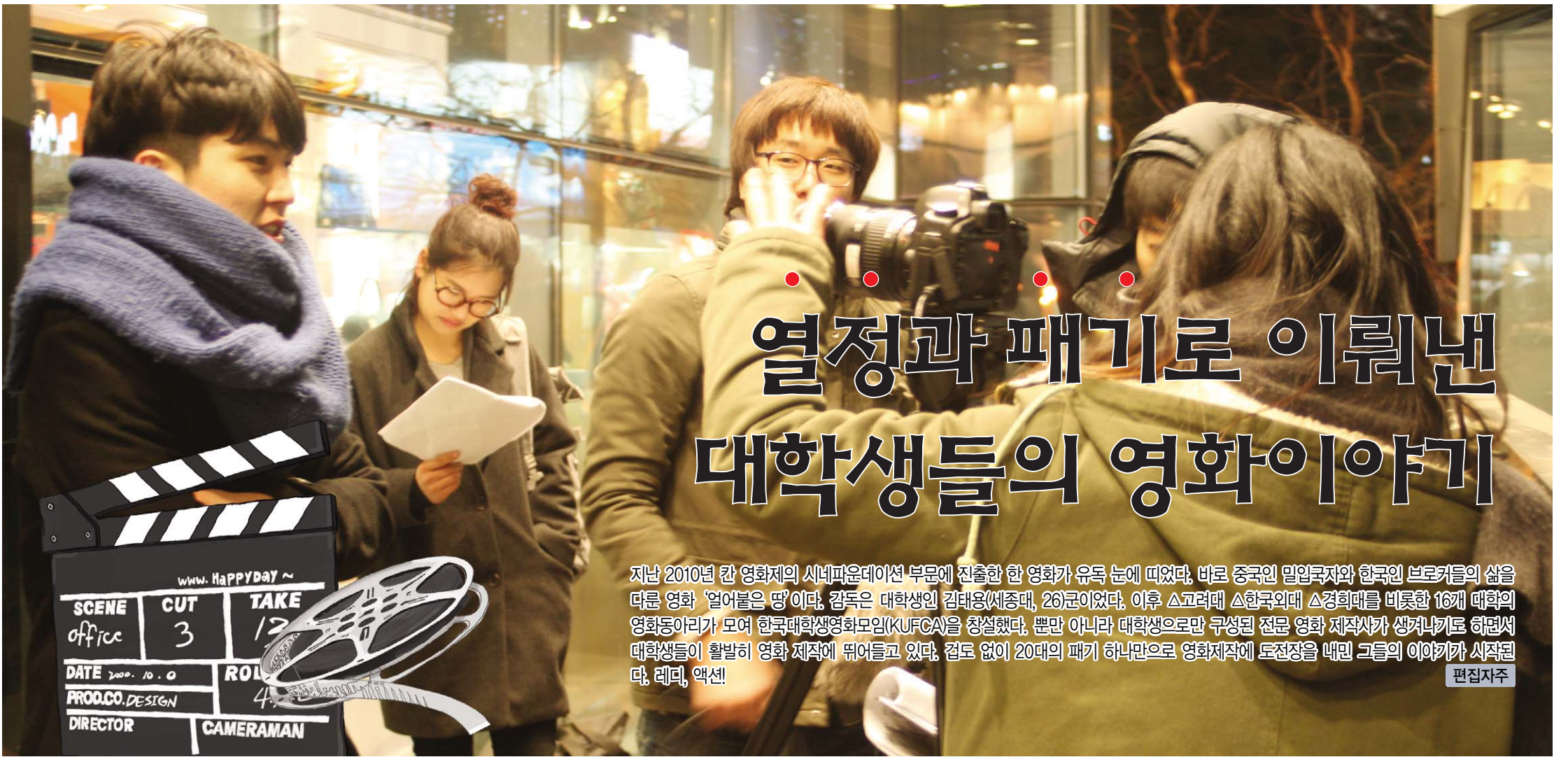
유로 꼽았다. 황성혁(통번역·아랍어 11)군은 “글쓰기 강의 덕분에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작문을 할 기회를 가졌다”며 “배운 내용이 글쓰기 이외의 다른 과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쓰기 강의는 짧은 채팅 글쓰기에 익숙해진 많은 학생들에게 바른 글공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글쓰기 강의의 장점을 살리고 사이버 강의 특성상 나타나는 단점을 최대한 줄이면 큰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탁광혁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학 능력은 뛰어나지만 글쓰기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학교를 대표할 진정한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선 글쓰기 강의의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의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 6년째 바뀌지 않는 글쓰기 강의 화면



열정과 패기로 이뤄낸 대학생들의 영화이야기

지난 2010년 칸 영화제의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 진출한 한 영화가 유독 눈에 띄었다. 바로 중국인 밀입국자와 한국인 브로커들의 삶을 다룬 영화 '얼어붙은 땅'이다. 감독은 대학생인 김태용(세종대, 26)이었다. 이후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의 영화동아리가 모여 한국대학생영화모임(KUFCA)을 창설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전문 영화 제작사가 생겨나기도 하면서 대학생들이 활발히 영화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겁도 없이 20대의 패기 하나만으로 영화제작에 도전장을 내민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레디, 액션 편집자주

◆ 젊음과 패기로 뚫은 영화촬영 24시

지난 달 25일(토) 오후 4시, 신촌에서는 대학생 영화제작모임 무브온(Move-on)의 영화촬영이 한창이었다. 주택가에서 남자 주인공이 언덕을 올라오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단순한 장면이었지만 무려 5번의 재촬영 끝에 힘겹게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감독을 포함한 대학생 스태프들은 드디어 마지막 장면 촬영을 위해 백화점 앞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장비를 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명을 요구한 한 대학생 영화제작자는 "영화에 대해 보다 깊이 배우고 싶어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는데 이론수업은 제작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A급 배우와 화려한 영상미를 내세우는 기존 상업영화에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환경이다. 제작비가 모자라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고 유명 배우는 꿈도 못꾼다. 하지만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주인공을 섭외하는 노력까지



화모임 T.O.P가 제작한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관객들이 우리영화를 보고 공감을 얻고 우리가 제시한 사회문제를 보고 관객들이 그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봐준다면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소재도 참신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 자주 찾아보게 된다"고 전했다. 영화 평론가 민병선 씨는 "대학생들이 제작한 영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수적"이라며 "상업영화의 아킬레스건인 검열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재와 제작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참신함과 친근함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대학생 영화

가다로운 관객들의 마음을 대형 상업영화로부터 빼앗아 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하지만 포레 대학생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만든 영화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평소엔 대학생들이 만든 영화에 관심이 많다는 홍재원(숙명여대, 20)양은 "편하다 편한 영화에 질렸었는데 대학생들이 만든

대학생 감독인 신동영(성균관대, 24)군은 '소녀, 죽다'라는 영화에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취직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감독이기 이전에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처지이기엔 더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대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얼어 붙은 땅'의 감독인 김태용군은 "대학생 영화인의 특성상 영화 제작에 있어서 문제의식이나 감수성의 발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며 "그것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 작품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

대학생들의 영화제작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외부 환경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민병선 씨는 "열악한 상황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치열함 없이 흥내만 내리는 마음가짐"이라며 "이 시대의 양심이 되고 사회를 고발한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충고를 덧붙였다. '포화속으로'를 비롯한 다수의 영화를 제작한 감독 이재선 씨도 "영혼과 진실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라"는 말을 전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람에 흔들린 꽃이 즐거울 게 세우듯, 비에 젖은 봉오리가 예쁜 꽃을 피워내듯. 부족한 기술력에, 제작비에, 대중들의 무관심에 흔들리는 대학생 영화인들 역시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작품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문나운 기자 84beginning@hufs.ac.kr



다
음 촬영자인 백화점 앞으로 향하는 길에, 연출을 맡은 최원진(이화여대, 24)양에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말을 건넸다. 씩씩하게 웃으며 그녀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다 보니 제작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커요. △장비대여 △배우들의 출연료 △식비 등 모든 지출을 회원들의 회비를 건어서 해결하고 있어요"

서슴지 않으며 영화제작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약 10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 온 영화모임 'T.O.P'의 회장 정종국(수원대, 22)군과 얘기를 나눴다.

영화제작모임 T.O.P의 회장 정종국군과의 인터뷰

Q 직접 다른 영화제작모임 촬영현장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작비가 부족해서 영화 제작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T.O.P에서는 제작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화제작비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영화를 2편 만들기도 버거운 정도예요. 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영화장비 대여소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등 여러모로 재정을 아끼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아르바이트도 하며 심시일반으로 영화자금을 모으며 제작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얘기를 들어보니 그 동안 관객으로 영화를 보기만 할 때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종국 씨를 포함한 T.O.P의 구성원들이 영화제작을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화제작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영화제작이 곧 제 꿈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영

◆ "멈추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대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무브온만의 사례가 아니다. 대학생들은 전문적인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하고 재정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물론 없다. 익



▲ 대학생감독 신동영군이 제작한 영화 '소녀, 죽다'의 포스터



*갈거리는 칩 갈(葛)이라는 한자와 거리라는 말이 합쳐져 '칩 나무가 많은 거리'라는 옛 지명에서부터 따온 말이다.

민음을 담보로 희망을 나눠요

학자금대출, 창업자금대출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이란 명목하에 '남의 돈 빌리기'는 만연해 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신용이나 물질적인 것을 담보로 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신용도 담보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힘들다. 정상적인 금융거래 뿐 아니라 한국판 그라민 은행이라 불리는 미소금융 등 서민전용 금융지원제도에서조차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신용불량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문맹인 등이다. 이들은 제 1, 제 2금융권은 물론이거니와 사금융인 제 3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들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단체가 있다. 바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갈거리협동조합이다.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들이 주체가 돼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꼭 필요한 순간 서로를 향한 민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갈거리협동조합. 신뢰를 바탕으로 희

◆민음이 들고 오는 협동조합

의 시초가 됐다. 조합원들은 노숙인 및 지역의 극빈 저소득자로, 출자를 통해 조합원이 된 뒤 담보 없이 연 4%로 최대 200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뤄지며 그간의 생활태도 및 자활의지와 돈의 지출내용이 일명 담보가 된다. 실질적인 담보물이 없어도 불구하고 상환율은 95%에 이른다. 콧원장은 "악성 채무율이 4%미만인 것은 민음이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담보 없는 거래는 책임감도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걱정의 목소리와는 달리 9년 차가 되어가는 이번호 갈거리협동조합의 자산은 2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보통예금 △출자금 △정기예금 △법정적립금 등을 바탕으로 △대출금 △보통예탁 △자영업예탁금 등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록 조합원들은 저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상부상조라는 연대감을 느끼며 저금을 계속한다. 친

◆노숙자에게 악수를 건네는 착한 손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신용불량자에 알콜중독자인 나에게 은행은 멀고 먼 이야기인줄 알고 살았다"고 과거를 회상하던 한 할아버지. 그때 당시 갈거리사랑촌이라는 노숙인들의 쉼터에서 쉬던 할아버지는 그간 보였던 성실한 생활태도와 의료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상담과정을 거쳐 갈거리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빌린 돈 덕분에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던 할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었을 때 먼저 손내밀어준 곳이 갈거리협동조합"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시간을 거슬러 2004년, 조합을 설립한 콧원장은 노숙인에게 쉼 곳을 제공하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콧원장은 "노숙인도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저급할 수 있는 은행도 없을 뿐 아니라 저급의 필요성도 크게 인식하지 못해 돈을 쉽게 써 버린다"며 "결국 다시 노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안타까워 갈거리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갈거리사랑촌을 찾아 온 사람들을 위해 저축과 통장관리를 대신 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독지가들과 2000만원을 모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조합을 만든 것이 갈거리협동조합



▲갈거리협동조합의 책사대회를 마친 뒤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가려는 김성원(왼쪽), 김중성씨.



▲갈거리협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안건을 경청하고 있다.

구와 함께 매년 저금을 한다는 한 할머니(72)는 "이자를 못 받는다 해도 기존 금융권에 비해 친근하고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갈거리협동조합을 찾는다"고 말했다. 한편 갈거리협동조합은 9년 동안 꾸준히 발전한 결과 출자에 대한 배당금을 2010년부터 지급하고

기를 하며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갈거리협동조합을 꿈꾸고 있다"는 포부를 전했다. 지난해 2월에 이사로 임명된 김성원(59)씨는 "장기노숙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고 알콜 중독자였지만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외부 신용을 얻었다는 기쁨이 가장 크다"며 노숙인이 된 후 처음으로 목표가 생기고 희망을 꿈꾸게 된 것에 감사를 전했다. 콧원장은 "갈거리협동조합의 목표는 이사진 100%가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자립한 사람들이 꾸려가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내부적으로는 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지역 상인까지 규모를 키워 협동하는 발전을 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해 100여 단체가 방문하고를 모델로 삼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번호 갈거리협동조합을 톨 모델로 한 서울 용산구 동작동 쪽방촌의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이 생겼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루 봉사야 아닌 장기적인 복지형 협동조합으로 미래를 꿈꾸는 자활활동이 오늘도 번져가고 있다.

◆목표와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갈거리

있다. 갈거리협동조합은 돈을 대출하는 것뿐 아니라 조합원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의미와 자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로 돕는 유대감을 중요시한다. 때문에 돈 거래를 넘어 노숙인들의 자활에 의미를 두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현재 노숙인에서 자립을 통해 이사가 된 조합원은 총 4명이다. 조합원에서 이사가 된 제 1호 명예이사 김중성(59)씨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며 특수 촬영비 등의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긴급대출을 받았던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노력을 통해 대출금을 갚고 이사가 된 이야

그림 읽어주는 기자 기자 고정 칼럼

서상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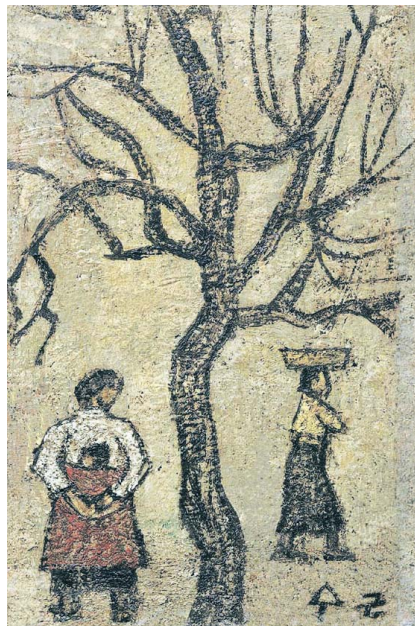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춤추는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무에선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박완서『나무』중

작품 한 가운뎃을 걸은 나무가 가로지른다. 굵고 얇은 나무가지들이 푸른 잎을 품지 않은 것을 봐서 계절은 겨울이 틀림없다. 왼쪽에는 붉은 보자기에 아이를 업은 여인이, 오른쪽에는 노란 저고리를 여미며 대야를 이고 가는 여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박수근의 그림은 편안하다. 어려운 주제도 없고 형태도 단순하다. 과묵한 색채 톤과 늠름한 어머니의 손등 같은 거친 질감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작가의 인고의 세월이 스며있다.

박수근은 미군 PX에서 간판쟁이들과 초상화를 주문받아 그리는 작업을 했다. 이 당시 만난 박완서는



(나무와 두 여인) 박수근 작

한 우리네 인생사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의 짓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사람의 몫'임을 그려냈다. 차디찬 겨울에도 봄의 믿음을 간직한 나무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믿는다면 먹구름 드리운 사회도 언젠가 맑게 개지 않을까.

이은수 기자의 들찬길* ② 동네미술관

*들찬길 : 들판으로 박차고 나아가는 길

만만한 미술관 하나쯤은 있어야지

최근 미술관이 소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던 장소의 이미지를 스스로 벗고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곳이다. 웬지 웃도 편하게 입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조용하게 작품 앞에서 끄덕끄덕 거릴 뿐, 이런 미술관 말고 동네 꼬마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저씨들이 출출해서 주전부리 사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동네미술관.

나왔다가 가볍게 즐길 만한 미술관은 없을까?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에 말 그대로 '동네미술관'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았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주택의 차고를 개조해 만든 동네미술관은 비좁은 공간은 둘째 치고, 비오면 작품까지도 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개방된 곳이었다. 이 때문에 햇빛이 그대로 조명이 되고 붉은 벽돌만 가득한 주택가와 은근히 잘 어울린다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였다. 동네미술관에서 두 번째 전시를 하고 있는 팝아트 작가 레전드 리씨는 "전시환경 면에서 이곳보다 좋은 곳이 더 많겠지만 작가를 뿌듯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호기심을 못 이긴 동네 꼬마들이 놀러오면 작가들은 그것이 반가워 자화상을 그려준다. 그 자

화상은 작품 옆에 한자리 차지하고 걸린다. 그림 그것을 보러 온 가족이 미술관 나들이에 나서기도 한다. 그야말로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술관 한편을 차지한 색깔 펜과 크레파스는 바로 반가운 손님들을 위한 선물이자 배려다.

사실 동네미술관은 공간이 협소해 걸릴 수 있는 작품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가는 보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유명작가의 작품을 치밀하게 구성해 전시하는 대형미술관에 비해 볼거리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은 만큼 작품과 관객, 관객과 작가 사이를 더욱 더 가깝고 인간적으로 이어준다. 동네 아이들과 마을주민의 생활 속을 파고드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다. 폼 나는 대형미술관도 좋지만 동네마다 만만한 미술관 하나쯤 있다면 그 파장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번달 17일(토)까지 동네미술관은 '동네히어로'를 테마로 레전드 리 작가 초대전을 진행한다. 팝아트로 표현한 캐릭터 '태권브이'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전시정보를 원한다면 blog.naver.com/dongnemisul를 방문해보길 바란다.



▲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조영한 교수

대학의 경쟁력은 좋은 교육과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본지는 학생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를 선정, 인터뷰를 통해 연구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문화라고 한다. 세계에는 다양한 사회가 존재하고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문화연구는 이런 다양한 문화를 사회적 맥락, 역사적 국면과 연결시키는 학문이다.

현재 이 학문에서 큰 화두는 한류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기 시작됐고, 2003년 '겨울연가'가 NHK를 통해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한류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

아시아의 한류 속에서 동아시아 찾기

다. 현재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드라마, 노래 등은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의 자랑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으로까지 만들어지며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한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시각과, 문화상품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각으로 흔히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시각을 극복하고 한류를 동아시아 대중문화라는 큰 틀에서 해석한 교수가 있다.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조영한 교수다. 조영한 교수는 한류를 국민의 자부심이나 국가의 수익을 내는 문화상품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아시아 대중문화의 한 형태이며 아시아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연결시켜줄 매개체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조영한 교수는 한류 자체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는 아시아 대중문화 흐름을 통해 동아시아의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조영한 교수의 최근 연구 성과는 "Desperately Seeking

East Asia Amidst The Popularity of South Korean Pop Culture In Asi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국제저명학술지인 "Cultural Studies"저널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한류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류는 유사한 문화와 삶의 조건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대중문화 형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즉, 한류를 동아시아 대중문화 중 하나로 여기고 특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 홍콩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한류도 큰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대중문화가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시아 대중문화의 기존의 포맷이나 생산방식이 전반적으로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대중문화 헤게모니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영한 교수는 논문에서 아시아의 대중문화 역시 즐기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문화교

류가 오랫동안 스며들어 형성된 것이고 나름대로의 역사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대중문화를 단지 미국의 대중문화를 따라한 모사품이 아닌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아시아 대중문화 스타들과 드라마 등이 더 활발히 세계로 진출하고 아시아 대중문화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아시아 대중문화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의 매체에 아시아 대중문화가 이전보다 자주 소개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서, 그 동안 일방적이었던 미국 중심의 대중문화 헤게모니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류라는 대중문화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감수성을 찾고자 한 이 연구는 한류와 같은 여러 대중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사람들이 공통된 관심사가 형성되고 다른 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데 공헌할 것이다.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문나윤 기자

배고픈 솔로, 외로움을 달래다



▲ 연극 「배고파도 살자」

수신자 :
외로운 솔로

산뜻한 느낌이 불어오는 3월. 개강 주를 보내며 아직은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는 당신과 달리 서로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춤지 않아 보이는 커플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오랜만에 학교에 다

니며 강의에 적응하느라 힘 빠진 당신이지만 전화해서 투정부릴 연인이 없다면 연극 한편을 관람하며 현실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어떨까.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줄 연극을 찾는다면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 외로운 당신을 더 외롭게 할 연극이 있다.

연극 <배고파>는 배고파서 죽고 싶은 남자 주인공 정자의 자살기도로 시작된다. 정자는 가난한 시인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한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한 그 찰나에 한 형사가 "배고프면 빵을 먹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빵 한 봉지를 주며 용기를 준다. 그는 그 빵을 지나가던 여주인공 난자와 우연한 기회로 함께 먹게 된다. 정자는 난자와 사랑에 빠지고, 배고픔을 달래주는 빵보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그들은 빵을 먹어 배부른 것보다도 빵을 못 먹어 배고프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없이 행복한 때를 보낸다. 물론 연인사이의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속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주인공들은 빵보다는 사랑으로 배고픔을 채운다.

주인공 이름을 눈여겨보자. 정자와 난자의 만남은 곧 인생에 있어 남녀는 함께 있어야 더욱 행복하다는 통상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만든다. 극 중 24살 연상녀와 연애하는 형사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며 지금 이 순간 배고픈 당신에게 일침을 가한다. 당신이 혼자여서 외롭고 허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따뜻한 봄 날, 당신이 웬지 모르게 춥고 뭔가 허전하다면 배부를 사랑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배부른 솔로보다 배고픈 커플이 낫다고들 하지 않는가.



세상을

책 it out 기자가 선정한 책을 통해 세상을 비추보는 코너입니다

안지혜 기자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을 꿈 꿔 본 적 있나

이 작품은 희곡이다.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만큼 독자가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머릿속에 실감나게 그려낼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작품의 배경은 1850년대 뉴잉글랜드 지방의 2층 농가. 지붕 위로 가지를 늘어뜨린 커다란 느릅나무 두 그루가 양쪽에 서있다. 지붕 위로 축 늘어져 있는 가지들은 마치 이 집을 보호 하려는 듯 혹은 정복하려는 듯 외벽을 완전히 감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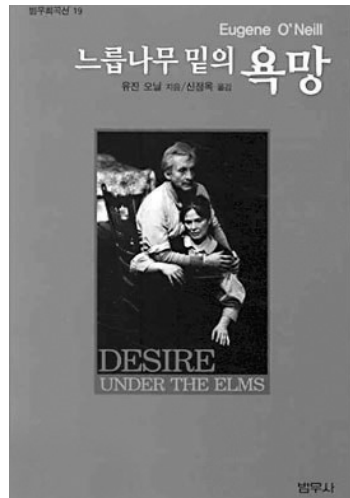
이 집에서 배다른 삼형제와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다. 셋째 아들 이븐은 아버지 에브라임을 복수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이븐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후처로 들어와 고생만 하다가 병을 얻어 죽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는 어느 날 또 20대의 젊은 여인 애비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그러나 아름답고 젊은 애비는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는 에브라임의 재산을 노리고 그와 결혼한 것이었다. 터질 것 같은 육감적 몸매를 과시하는 20대 중반의 젊은 체모와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20대 초반의 어린 아들은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고 결국 사랑에 빠진다.

얼마 후 애비가 임신 하자 늙은 남편은 기쁜 마음에 파티까지 열지만 비극은 이미 시작됐다. 이븐은 애비의 임신이 '누구의 자식이든 일단 아이를 낳아서 이 집의 재산을 상속받기만 하면 된다'는 계약의 일부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애비는 이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결국 갖난아이를 살해하기에 이르고 연인들이 동반으로 보안관에게 잡혀가면서 극은 막을 내린다.

이 작품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바탕으로 탐욕과 질투, 증오와 배신 등 인간의 어두운 이면을 묘사한다. 근친상간과 영아 살해까지 이르는 이븐과 애비의 파국적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적어도 본능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욕구와 열정에 충실한 사랑을 했다고 봐 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러한 파국적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욕망이 작품 시작부터 숨막히게 집 전체를 감싸고 있던 느릅나무로 표상되는 것이다.



▲ '느릅나무 밑의 욕망' -유진 오닐

세상 누구나 도덕적 통념과 본능적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개의 경우 도덕적 통념이 승리한다. 우리 안에 감춰진 욕망의 느릅나무를 막장 드라마가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경·제·쑥·쑥

강두식(아시아항공 차장)

네모난 지구 13 <고정기고>

김병호(국제지역대학원)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져다 준 혜택

올바른 의사결정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경험이다. 지난 10월 30일 새벽 03시 20분, 중국 창사공항에 가 있는 창사·부산행 비행기가 출발시간이 됐는데 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하여 창사지점에 연락해서 알아 본 결과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안개가 밀려와서 이륙기상이 안 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제나 저제나 안개가 걷히길 기다려도 마음만 초조할 뿐 안개는 걷힐 생각이 없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1시간 50분, 안개가 조금 걷혀서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제 한숨 돌리고 다른 운항스케줄을 검토하고 있는데 20분쯤 있다가 전화가 왔다. 안개가 또 밀려와서 비행기가 다시 램프로 돌아왔다고 했다.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왜 비행기가 가지 않느냐 아우성인데, 창사공항 기상당국에 물어보니 아침 10시까지 안개가 걷히지 않겠다고 했다. 승무원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계산을 해보니 8시까지는 출발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최소 16시간에서 24시간 지연이다. 남은 시간은 겨우 2시간 40분, 이 시간 내에 안개가 걷혀야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다. 비행기에 탄 손님들을 하기에야 하나?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까?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첫째 안개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당시 안개

는 밤낮의 일교차에 의해 생긴 복사무였다. 복사무는 기온 변화나 바람에 따라서 1~2시간 내에 금방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아직 2시간의 출발 가능한 시간이 남아 있다. 셋째 기상당국의 예보다. 안개가 10시까지 걷히고 해서 현재처럼 이륙불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다리는 게 좋다. 지금 하기하면 나중에 지연을 2시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2시간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는 게 더 나은 결정이다. 운항결정 담당자는 첫 번째 계획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대안도 세워 놓아야 한다. 승무원을 다시 편성해서 타사 비행 편으로 보내는 방안, 대체비행기를 마련해서 창사공항으로 보내는 방안과 후속 스케줄 조정까지 마련 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한 후 기다린 시간이 1시간 30여분, 안개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 아침 7시 30분이 지나는데 연락이 왔다. 안개가 조금 걷혀서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했다. 승객 하기 15분 남겨두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 의사결정은 어렵다. 그러나 올바른 의사결정은 엄청난 비용절감과 고객만족을 가져다준다. 2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찍 하기를 했다면 승객들의 큰 불편과 막대한 호텔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항공기 한대가 24시간 묶이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하루 매출액 감소)도 엄청나다.

세계 권력의 흐름이 재조정된다. 1월 14일 대만 총통 선거, 3월 4일 러시아 대선은 이미 치러졌다. 또, 프랑스(4월)를 시작으로, 인도(7월 예정), 미국(11월), 한국(12월)에서는 대선이 치러지며, 10월 중 중국에서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현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차기 지도자직을 물려받게 될 예정이다. 차기 대통령 혹은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외교 기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급속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3월 4일에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통합 러시아당)이 63.6%의 득표율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 줄곧 강한 러시아를 천명해온 푸틴은 2020년까지 국방비에 88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구소련 해체 이후 조개진 15개국을 경제 연합 형태로 묶어 '유라시아 연합'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푸틴이 당선되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며 기존의 중·러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더욱 공고히 하는 외교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러시아가 중국에 전투기 48대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군사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권력 지도의 재편

이런 중·러의 외교 행보는 비단 양국 사이의 이익에만 기반을 두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리아 사태나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중·러의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 볼 수 있다. 시리아 사태 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시리아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고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데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학살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신 중국 외교부는 유혈사태 해결을 위해 정권 이양보다는 리화진 전 시리아 대사를 시리아로 파견해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측 또한 기존 입장을 선화하기보다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라는 한 국가의 대선 결과가 세계 세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힘에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중에 이런 중·러의 협력 강화는 세계 세력 균형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있을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의 정치 변화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로그아웃 기자 고정 칼럼

홍규원 기자

신뢰의 이름이 되는 그날까지



이번 호에 실릴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얼마 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갈거리 협동조합'을 다녀왔다. 처음 '갈거리 협동조합'에 도착했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노숙자와 자원봉사자들의 경계의 눈초리가 느껴졌다.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피하기만 하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하기를 꺼려하셨다.

사실 갈거리 협동조합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취재를 하다 보면 학보 기자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다반사다. 인터뷰를 요청해도 "왜요?"라는 사람들의 말이 비일비재하고 "하기 싫어요"라며 거부의 의사를 내비치는 사람들도 많다. 얼마 전 학내 취재에서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도 한 학생이 "학보의 의견을 내도 어떻게 나오는지 인터뷰이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논란을 사지는 않을까 우려했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처음에는 그 학생의 말이 당황스러웠지만 생각해 보면 학생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신문이라는 것은 학생이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자라는 매개체를 거쳐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을 비롯한 외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3자인 기자의 취재요청이 답답지 만은 않을 것이다.

학보에 대한 학생들의 경계를 늦추는 것은 전적으로 기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외대학보가 신뢰성 높은 기사를 써 학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려 노력하면 인터뷰이도 우리에게 대한 경계를 낮출 것이다. 취재하면서 만나는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우리학보를 믿고 속 편히 얘기 할 수 있게 정확하고 또 정확한 기사를 쓰는 외대학보의 기자가 될 거라고 다짐해 본다.

홈페서(HUFS+professor)의 소리

나름의 사람 사귀는 방식 때문인 것 같다.

방식의 첫 번째는 사소한 친절이라도 베푸는 것이다. 대학 신입생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지방 출신인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같은 과 친구가 학보를 보내왔다. 학교 소식이 궁금했던 참이어서 매우 반가웠고, 더구나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보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들뜨게 했다. 방학이 끝나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했더니 의아해했다. 알고 보니 특별히 나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과 학생 모두에게 보낸 것이었다. 당시 학보를 보내는 우편로는 매우 썼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해서 별 뜻 없이 보낸 것이었는데, 오히려 무슨 큰 은택이나 입은 듯 고마워하니 겸연쩍어

문명재 일본학부 교수



나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대개는 이 말을 칭찬으로 해 주지만, 어떨 때는 '당신은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해서 사람을 사귀는데 주관이 없어 보인다'는 말로 들리기도 해서 뜨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왜 나라고 적이 없겠는가. 그리고 나 또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을 듣는 것은 내

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친한 친구가 되었으니, 사소한 친절이라도 베풀고 볼 일이다.

방식의 두 번째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를 사귀려는데 B가 A의 못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사귀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A를 사귀기도 전에 선입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B는 자기 자신이 A에 관해 나에게 얘기해 준 것이고, 그것이 나와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에 의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면, 남에게는 나쁜 사람일지 몰라도 나와는 친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식의 세 번째는 사람마다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50점짜리 친구도 있고 90점짜리 친구도 있다. 그래서 90점짜리 친구가 70점짜리 행동을 하면 서운하고, 50점짜리 친구가 70점짜리 행동을 하면 같은 70점짜리 행동이라도 감동한다. 50점짜리 친구에게도 90점짜리 친구의 잣대로 재면 친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기준이 다르니 두 사람 모두와 나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

대학생활에서 사람 사귀는 일은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각자 특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면 나의 주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쉬우며 미워하기까지 하는데,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만 만남 속에서 덕과 은혜가 나타나 는 것이다.

외대생의 꿈과 열정

화클림이며 심지어 역도만큼까지 들어가 활동했고 학교 밖에서는 흡사 단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인지 대학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관심 둘 곳이 없었다.

그래도 내겐 꿈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품어온 외교관의 꿈이었다. 대학에 오자 꿈을 실현 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했다. 내 인생 남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자각도 다른 곳에 한눈 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했다.

외무부에 들어와서도 한 우물만 폈다. 외교부 업무가 정무 위주인데도 나는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외무부에 들어오기 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년간 일한 경험이 내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공직자로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마음으로 일했다.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대표를 맡아 협상을 타결한 뒤 은갓 비난을 받았어도 견딜 수 있었다. 광주병 파동의 한 가운데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다. 대사로 나가버리지 못할 때에 고위공직자가 언론과 싸우느냐는 주의를 조언을 모욕으로 여겼다. 대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거대언론을 상대로 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법정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가 공직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다. 마침내 대법원은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는 후배들에게 분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삶이 후배들에게 복사판이 될 수도 없다. 요즘 취업이 어려워 노심

초사하는 후배들을 보면 마음이 잔다. 그러나 나는 후배들이 저마다 꿈을 가꾸고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요즘은 남 탓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남 탓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내가 하는 만큼 거둔다. 외대인 중엔 머리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머리 좋으면 뭐하나.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쓰면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남에게도 득이 될 뿐이다. 오직 실력을 가꾸기 바란다. 실력이 없는 외대인이 설 땅은 없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바란다. 그게 프로다. 아름다운 꿈이루기 바란다. 사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다.

일시 정지 걸음의 이유



10년 전 유행한 노랫말처럼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는 알 수 없다. 정해진 이정표도 없고 지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가 확보된 행복보다 더 짜릿하기 때문이 아닐까.

글 서상아 기자 / 사진 우보연 기자

동문의 소리

화클림이며 심지어 역도만큼까지 들어가 활동했고 학교 밖에서는 흡사 단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인지 대학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관심 둘 곳이 없었다.

그래도 내겐 꿈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품어온 외교관의 꿈이었다. 대학에 오자 꿈을 실현 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했다. 내 인생 남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자각도 다른 곳에 한눈 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했다.

외무부에 들어와서도 한 우물만 폈다. 외교부 업무가 정무 위주인데도 나는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외무부에 들어오기 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년간 일한 경험이 내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공직자로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늘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제작년 말 청와대 대변인은 내가 외교통상부 차관에 내정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역대 외교부 차관 49명 중 외대출신은 민 차관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맞는 말이다. 외대만큼 외교부와 관련이 많은 대학이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동안 차관 한명 없었는지 솔직히 나도 놀랐다.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 내가 내세울 것도 기억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공부 외에는 별로 신경을 쓴 것 없으니 그럴 수밖에. 고등학교 다닐 때 웅변반이며 영어회

지난호를 말한다 | 이상은 | 동아어·이러어 11

지난호를 말한다 | 김정민 | 동유럽·세크어 11

1% 아쉬웠던 학보

2012년 새 학기의 첫 학보였던 만큼 946호는 등록금이나 강의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등록금의 경우 2.2%를 인하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 명목 등록금의 인하나 등심위의 외부전문가 부재와 같은 자세한 내용까지 알게 되었다.

강의 계획서에 관한 내용은 심층보도와 사실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었다.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새삼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었다. 하지만 기사와 함께 첨부된 그래프가 내용 이해에 별 도움이 안 됐다는 점이 안타깝다. 단순한 수의 나열 보다는 기사 내용에서처럼 비율을 표시해서 보여주는 게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한다. 지난호와 올해를 비교하려는 의도였다면 그래프를 두 개 만드는 것도 좋을 듯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다룬 심층 기획기사도 인상 깊었다. 실천본부 사무총장이나 카이스트 21대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 모두 잘 읽었다. 그런데 하단에 위치한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란에 붙은 '아직도 확신이 없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과 테두리 장식은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었다. 굳이 그런 제목은 붙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학교의 유서 깊은 맛집을 다룬 7면의 기획기사도 인상 깊었다. 우선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 기사의 배경사진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평소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던 학교 앞 음식점인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는 것도 신선했다. 그런데 작은 사진들이 많아 하나의 사진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이번 호는 그 밖에도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학보를 읽기 힘든 부분이 중간 중간 있었다는 것이다.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두 번 읽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또한 독자기고란에서 오자도 발견했다. 퇴고와 편집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사소한 보이는 것에서 빈틈이 보이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실에서 밝힌 2012년 학보의 목표는 연구와 교육관련 기사 강화였다. 앞으로도 학보의 지향점을 잊지 않으며 기본에 충실한 외대학보가 되었으면 한다.

옥의 티 없는 신문을 읽고싶다

지난 946호에서는 등록금과 강의계획서 같은 학내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우선 제1면의 등록금 인하에 대한 기사를 통해 등록금 심의과정을 알게 돼 참 유용했다. 기사는 사실전달에 그치지 않고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짚어줘 한 차원 높은 정보를 전달했다.

학내기사 뿐 아니라 기획기사들도 유익한 내용들로 차있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소재로 다룬 기사는 매니페스토 운동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라 사실성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성을 보충했고 읽는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문화면 기사도 생소한 대안대학을 소개하며 대학공부에 회의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됐을 것이다. 제9면 교양글 역시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발표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많은 교수들이 발표와 취업의 관계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글을 통해 발표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어 유익했다. 아마 대학발표에 낯선 신입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처럼 지난 946호에는 대체로 좋은 기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크게 두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4면 강의계획서 업로드와 관련된 기사에서 실수를 보였다. 기사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강의계획서 업로드 상황이 캡처돼 수강신청기간 전과 수강신청기간 중으로 나뉘어 기재됐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자는 글로벌캠퍼스의 상황이고 후자는 서울캠퍼스의 상황이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대상을 놓고 해야 더 설득력 있고 그래야 독자들이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기사에 그런 옥의 티를 남겨 읽는 내가 더 안타깝다. 그리고 제7면 학교 앞 맛집 탐방기에서 맛집들은 총 세 곳 정도 소개됐다. 그런데 모두 서울배움터가 위치한 이문동 주변의 맛집들이었다. 외대의 역사와 함께한 맛집들을 소개해주어 신선했지만 글로벌캠퍼스 앞의 맛집은 소개되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외대학보는 양배움터 학생들이 읽는 신문이니 독자에게 한 쪽 방향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다 커버린 내 동생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자마자 외조 부모님의 손에 졌다. 그렇게 8년을 커 온 내게 7살 터울의 남 동생은 그다지 반갑지 않았다. 동생이 생겼으니 모여 살자는 아빠의 말은 내가 이제 외갓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외증조할머니께서는 내가 외갓집을 떠나던 날 맨발로 대문간을 뛰어다니시며 떠나는 차를 한참이나 쫓아오셨고, 우리는 몇 번이나 멈춰서야 했다.

전화기 너머로 전달되는 그들의 외로움에 그리움은 더욱 커져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이 모든 일이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외갓집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관심이 8년 만에 같이 살게 된 내가 아니라 저 어린 아기에게 쏟아질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동생을 예뻐할 수가 없었다. 궁금한 마음에 보려하면 얼굴을 핥고, 잠들었을 때 가까이 갔다가는 울어버리는 통에 내가 구박을 받는 이 악순환이 모두 동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라면서도 동생에게 따뜻하게 대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기숙사에 살게 된 이후로 종종 엄마를 통해 동생이 내가 언제 집에 오는지 궁금해 한다는 말을 들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평소와 동생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반성하게 됐다.

얼마전, 새벽까지 계속된 개강파티를 마치고 일찍 가느라 피곤하고, 가방이 무거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누나, 가방 들어줄게"라고 말하며 내 가방을 들어줬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났다. 어느 새 나보다 키도 더 커버렸고, 콧수염도 나고 있는, 어엿한 중학생이 된 동생이 눈에 들어왔다. 날 위한 마음 씀씀이가 문득 너무도 고마웠다. 아직은 어색한 내 동생이지만, 언젠가는 그동안의 내 마음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찾기

3월이 시작되고, 춥기만 하던 왕산골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 것 같다. 내가 작년에 스쳐가면서 봤던 낯익은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캠퍼스가 가득 찼다. 대학 하나만을 바라보며 공부만 했던 새내기 학생들은 자신들의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에 한줄기의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캠퍼스 생활을 기대해 설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다가오고 다시 시작되는 3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이 설레면서도 두렵다. 나는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소중한 것을 잃고 또 잃어짐에 따라 오는 두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조용한 저녁버스 안에서 김이 서린 창문너머를 내려다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했다. 화려한 네온사인 너머로 보이는 야경에 누군가는 조용히 감탄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에는 그때, 그 순간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 뜻밖에도 예전과 같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설렘이 많았던 과거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 나를 채웠다. 내가 느꼈던 그때의 그 감정 그 순간, 다 돌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이미 많이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영감, 즉 디자이너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뮤즈도 우리들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도 이것을 찾고 있으며, 그 존재를 믿고 싶다.

나만의 뮤즈? 그것을 다시 찾고 느끼는 순간, 다시 나는 예전의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나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그렇게 나는 '나'를 다시 찾고 싶다.

생존을 위한 변화의 수용

조직의 변화는 여간해서 조직 내부 동력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이 '어제'와 같다면,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은 '오늘' 변화하기를 거부한다.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변화에 대한 저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조직의 변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연구 업적 평가 기준을 가혹할 정도로 강화시켰다. 당연히 내부적 저항도 컸고, 저항의 이면에는 학문 활동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합리적인 명분도 있었다. 하지만 연구 업적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대학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학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가 대학의 존립에 치명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화된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힘겨운 선택이었다.

지금 우리 대학이 직면한 본분교 통폐합 문제 역시 변화된 외부 환경에서 우리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어려운 선택의 문제이다. 대학의 본교 설립을 장려하던 20년 전 환경이 이제는 본분교를 통합해야만 생존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하고, 제도도 변한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변화를 수용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파산보호신청을 한 필름왕국 코닥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제왕이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증언한다.

지난 943호 '외대학보'에서는 '외대학보 이대로 연명하다 죽을순 없다'는 제목의 칼럼 기사가 1면에 실렸다. 시대가 변했고, 대학생들이 학보에 관심을 안 갖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학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학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려면 학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우리 대학이 경쟁력 있는 교육 기관으로 생존하려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단합하여 변화를 수용하는 것

의사공개는 소통의 기본자세다


국회법에는 '의사공개 원칙'이 제정돼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기 위해 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이는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며 의사보도의 자유, 국회의사록의 공포나 배부자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는 일반 국민이 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고, 회의록도 매회 인터넷으로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보의 공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떠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나왔는지 국민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국민들의 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회의 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학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국회에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는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한 참관이 가능해야 하며, 참관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회의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 또한 필요하다. 이는 학생의 한 사람인 기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기자는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권한은 없지만 취재와 보도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언론사 존재의 목적과 일치한다.

따라서 △회칙에 없기 때문에 △중운위 구성원들의 다수결 결과에 의해 △타 대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의 참관을 제한하고 회의의 결과만 통보하겠다는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의 결정은 우려했다. 이 같은 결정은 더 나아가 학생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선별된 정보만 제공할 것이라는 자체 검열의 의미로 해

·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 투고방법 : 전자우편 hufspress@hanmail.net



비둘기 칠판

외대학보가 묻습니다
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서울배움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앉아 부드러운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고 싶어요.
석진언(사회·행정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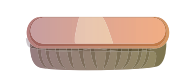
올 봄에는 피어나는 꽃처럼 미모에 물이 울랐으면 좋겠어요.
노세림(중국·중국어 10)

수험생활을 하느라 벚꽃놀이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 봄에는 벚꽃 날리는 고궁탐방을 꼭 해보고 싶어요.
신지혜(사회·자전 12)

■ 글로벌캠퍼스
새로 입학한 12학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어요.
애들이 친하게 지내자~ 김민지(경상·국경 11)

하루 종일 학교 잔디밭에서 자리 잡고 책을 읽고 싶어요.
장혜연(자연·화학 09)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에 남자친구와 수원 화성이나 벚꽃 날리는 경기도청으로 소풍을 가고 싶어요.
이다경(인문·철학 09)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오유진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9)2173-2504 / 02)2173-2505(F)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외대학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독자 기고란
· 홈페이지의 소리(교원) · 흡산의 소리(학생) · 동문의 소리(동문)
· 지난호를 말하다

◆ 기사 제보 및 기고 주실 곳
· 전자우편 hufspress@hanmail.net
· (서울) 09)2173-2504 (용인) 031)330-4112
· 학생기자실 (서울) 신학생회관 401호 (용인) 학생회관 212호
· 편집장 오유진(어문·그물어 10) 82yujin@hufs.ac.kr
· 보내주시는 기사제보는 신문사의 편집 계획에 따라 실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십자말풀이

		②						③
①				④				⑩
						⑤		
						⑥		⑧
			⑦					
	⑤				⑨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1 가로열식

- 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의 계층의 금융조합 (8면 참조)
- ⑤ 한국의 화가. 회백색을 주로 하여 단조로우나 한국적 주제를 서민적 감각으로 다룬 점이 특색이다. 대표작에 《빨래터》《나무와 두 여인》《아기 얽은 소녀》 등이 있다. (8면 참조)
- ⑥ 각 국의 정상들이 모여 주어진 사안을 논의하는 것. 우리학교에선 '모의 핵 안보 OOOO'가 열렸다. (1면 참조)
- ⑨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곡을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 ⑩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을 뜻하는 한자어 (9면 참조. '느릅나무의 OO')

1 세로열식

- ①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을 이르는 말.
- ②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의 사자성어
- ③ 서울배움터 지하캠퍼스에는 OOOOO의 후원으로 빅 애플 라운지가 만들어졌다.
- ④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해를 이룬 무리. 우리학교에서는 매년 'OOO백랍회' 행사가 열린다. (2면 참조)
- ⑤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 ⑦ 산행과의 두해살이풀로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
- ⑧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401호 담당자 : 안지혜 기자 (010-9244-0732)
■ 글로벌 캠퍼스 학생회관 212호 담당자 : 우보연 기자 (010-4877-0115)

■ 정답 십자말 풀이를 이들과 연락처와 함께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문외상품을 드립니다.
단, 하나라도 틀릴 경우 상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학문을 품은 학문?!

통섭의 학자 최재천 · 임일환 교수님을 만나다

스티브 잡스는 기계의 몸통에 예술적 시각을 덧입혀 혁신을 꾀했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어 무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통섭'의 중요성과 그 결과물이 역설되고 있다. 인간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한 부분만 알아서는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어느 학문 분야나 깊게 들어가면 다른 분야들과 서로 연관 지어졌으며 더 깊이 파고들면 결국 모두가 하나로 귀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은 이제 '통섭형 인재'를 원하고 있다. 하나의 학문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문들에도 조예를 가진, 두루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통섭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최재천 교수와 우리학교에서 찾은 통섭학자 임일환 교수를 만나 통섭형 인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과 가야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 임일환 우리학교 철학과 교수

외대학보(이하 외) 안녕하세요, 교수님. '통섭'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제시한 원조 학자로서, 통섭을 설명할 때 자주 빗대시는 표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재천 교수(이하 최) 통섭은 '비빔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섞었을 때 원재료 각각보다 더 나은 맛을 내려면 조화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비빔밥'은 벌써 오래전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당근 △버섯 △호박 △각종 나물 등을 따뜻한 쌀밥 위에 얹어 고추장 한 수저 쪽 퍼서 비벼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계란프라이 하나 더 올리면 금상첨화지요. 개별로 놓고 보면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인데 '비빔밥'이라는 이름 아래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문 간에도 그런 '잡탕' 혹은 '비빔'이 가능한데 바로 그걸 '통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외 생물학과 철학을 그릇에 담고 경제학을 고추장 삼아 비벼보자는 말씀인가요? 한 학문을 통달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것저것 학문간 경계를 허물어 많은 분야를 알아야한다는 게 좀 버겁게 들리기도 합니다. '한 우물을 파야 성공 한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한 우물도 제대로 못 파면서 다른 여러 개의 우물을 기웃거리는 것은 제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인 전문분야의 한 우물은 제대로 확보해 두되 거기서 좀 더 발을 넓혀 보자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대개 평생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00세 인생시대입니다. 70세, 80세까지 일을 해야 하기에 한 가지 학문 혹은 기술로만 오랜 시간 버티기엔 역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우물을 파는 게 어렵게 들리다고요? 여러분



▲ 최재천 교수는 사무실 옆방에 '통섭원'이라는 의견 교환의 장을 만들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이곳 최교수의 책장에서 책을 빌려가고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았다.

나이 대에는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수학 능력'이라는 것이 탁월합니다. 어떤 것이든 만 시간 이상 투자하면 도가 튼다는 말이 있죠? 하루 세 분야에 세 시간 씩 투자한다고 생각할 때 십년이면 벌써 얼마만큼의 우물을 닦은 것이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고, 안 된다는 핑계 또한 만들어 내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 최근 저서 '통섭의 식탁'에서 통섭의 인재가 되려면 잡독(雜讀)을 하라며 △자연 과학 △인문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56권이 다양한 책들을 권하셨어요. 누구나 자기 관심분야 아닌 책은 한두 장 읽다가 놓기 마련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나요.

최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시도하려 하지 말고 접근가능한 '덜 괴로운 지옥' 부터 시작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권하는 독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따르다 보면 쉬운 개념부터 어려운 것까지 조금씩 수준 오름 할 수 있으니 비교적 수월할 것 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작을 했다면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렇게 한 권 두 권 읽다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넘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통섭을 기획하려 하진 마세요. 이 분야 저 분야 넘나들면서 관심 갖다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계의 소산들이 '팝업(pop-up)' 할 겁니다.

'통섭'과 가까운 학자는 멀지않은 곳, 바로 우리학교에도 있었다. 우리학교 인문대 철학교수이자 한국 논리학회 연구이사과 한국인지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분석철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일환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 그는 학부 때 천문기상학을 전공했으나 어찌 된 전말인지 겉보기에 그의 커리어는 '천문기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점차 그가 '과학을 품은 철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임일환 교수가 말하는 '통섭'에 대해 지금 들어본다.

외대학보(이하 외) 통섭의 개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지 오래입니다. 대학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혹은 적용할 수 있는 통섭은 어떤 것일까요.

임일환 교수(이하 임) 요새야 통섭이 사회 포괄적인 의미로 확산됐지만 원래는 굉장히 학술적인 개념이에요. 지식의 정수라는 대학사회에서 통섭이란 자기 전공에만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 분야만 아는 것이 학문발전에서 저해된다는 의견이 대두돼 최근 대학들에선 다시 비슷한 이름의 과목들을 묶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university(대학)'의 어원이 'everything(모든 것)'을 의미하는 만큼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있어 전공이 골레가 되면 안돼요.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선 전교생의 완전 학부제를 실시한다고 하죠. 관심 있는 과목을 골고루 수강하면서 본인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찾아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그 곳에서 통섭이란 일부러 노력하는 개념이 아니죠. 한국과는 교육 시스템이 다른 까닭이겠지만 웬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체적으로라도 여러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외 학부 때 천문기상학을 전공하셨는데 후엔 논리학, 인지과학 등을 연구하는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위 학문들이 연계성이 있는 것들이었나요?

임 서울대 이학부에서 공부하던 당시는 학교 자체에서 다른 과 수업의 교차 수강을 권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사, 정치학 등 각종 수업을 다 듣다가 마침내는 철학에서 길을 찾게 됐죠. 천문기상을 공부하다 보니 결국은 과학 안에 철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도 있고요. 후에 저는 영미철학을 공부했는데 전통철학보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영미철학의 특성상 현대사회에서 통섭 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한국 인지과학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인지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해 △철학 △언어학 △심리학 △전산학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경험을 말할 수 있겠네요. 정보처리 장치를 만들기 위해 철학 분야의 학자들 또한 모였다는 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인공지능의 아이디어 자체는 철학자들이 추진하고 제안했던 내용이랍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자들만 필요할까요? 천만에요. 한글 자모음의 빈도수를 파악해 자판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언어학자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이렇듯 사회 여러 가지 성과물들 안에는 많은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돼 있습니다. 각 학문 분야가 언제라도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외 아, 컴퓨터 키보드를 만드는 데 언어학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다방면에 관심을 주고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사회가 제시하는 통섭의 인재 상을 위해 대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임 첫째는 '대학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대학의 이념에 맞게 다방면을 공부하는 것 이구요. 둘째는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 본인의 가치와 취향을 발견 하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좋고 연극 관람, 미술관 견학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지요. 아, 이 이야기도 덧붙여야겠네요. 우리 학교는 언어가 특성화 된 대학만큼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학생들이 많아요. 소통을 위해 언어는 중요하지만 요즘 사회는 언어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았으면 해요. 어떤 기업이 새로운 나라로 사업을 넓히려려고 할 때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단순 언어능력자만 뽑아서 과연 그 기업이 성공 할 수 있을까요? 이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까지 두루 아는 인재가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어려우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의견과 지식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마 '통섭'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자연스러운 지름길 일 겁니다.

글 안지혜 기자 84lady@hufs.ac.kr
사진 홍규원 기자 84kw@hufs.ac.kr